
2026 Asian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

출장보고서

2026. 06. 18 ~ 2026. 06. 22

KDI 재정·사회 정책연구부

1 출장 배경 및 목적

□ (출장 목적 및 배경)

- (목적) 2026 Asian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 (이하 AMES) 학회 참석 및 논문 발표
- Econometric Society는 경제학 분야 최대 학회이며, AMES는 해당 학회의 아시아 지역 컨퍼런스로, 아시아의 주요 경제학 컨퍼런스 중 하나임.
- 발표논문 제목: Minimum Wage, Working Hours, and Overtime Pay Regulation: Evidence from the Matched Current Population Survey
-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Econometric Society는 경제학 분야의 최대 학회 중 하나이며, Econometrica 및 Quantitative Economics(「대학원 교원 업적평가규정」 A등급 학술지)를 발행하는 등,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.
- AEMS는 해당 학회의 아시아 지역 컨퍼런스로, 아시아의 주요 경제학 컨퍼런스 중 하나임.
- 해당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 논문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, 현재 아시아 각국에서 진행 중인 노동경제학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2 출장 개요

□ 출장지 및 기간

○ 출장지: 홍콩 HKU Business School (AMES 학회)

○ 출장기간: 2026.06.18. ~ 2026.06.22.

□ 출장자 (총 1명)

소속	성명	직위
KDI 재정·사회정책연구부	정수환	부연구위원

□ 주요활동

○ 2026 Asian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 참석 및 논문 발표

3 출장 일정

일자	주요일정(안)
6.18 (목)	[출국] 인천 → 홍콩 (KE 2005)
6.19 (금)	[10:00-11:00] 학회 등록 [14:00-18:30] 2026 AMES 참가 * 참가 세션 - Invited Session: Gender and the Household - Labor and Public Economics II: Health
6.20 (토)	[09:00-18:30] 2026 AMES 참가 * 참가 세션 - Industrial Organization II - Chow Lecture by Ufuk Akcigit - Labor and Public Economics V: Marriage and Fertility - Invited Session: How Generative AI Reshapes Creative Production and Markets
6.21 (일)	[09:00-16:00] 2026 AMES 참가 및 논문 발표 * 참가 세션 - Labor and Public Economics VIII [14:00-16:00] 2026 AMES 논문 발표

	- 발표 세션: Labor and Public Economics IX - 논문 제목: Minimum Wage, Working Hours, and Overtime Pay Regulation: Evidence from the MAtched Current Population Survey
6.22 (월)	[귀국] 홍콩 → 인천 (KE 2002)

4 활동 내용

1. 개요

☐ 학회명: 2026 AMES

☐ 일시: 2026년 6월 19일 (금) ~ 2026년 6월 21일 (일)*

*발표 논문 세션이 21일 오후에 배치됨에 따라, 21일 오후 발표 후 홍콩발 국내 귀국 항공기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 22일에 귀국함.

☐ 장소: 홍콩 HKU Business School

2. 발표 논문 내용 및 관련 논의

☐ 논문 개요

○ 논문 제목: Minimum Wage Increases, Hours of Work, and Overtime Pay Regulation: Evidence from the Matched Current Population Survey

○ 발표 일시: 2026년 6월 21일 (일)

○ 발표 세션: Labor and Public Economics IX

☐ 논문 주요 내용

○ 2004~2019년 미국 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, 최저임

금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.

-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,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노동시간 수준에 따라 상이할 이론적 가능성이 있는데,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함.

- 방법론

-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이용하여 2개 년도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, 첫째의 노동시장 성과가 유사한 집단 간 최저임금 인상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
- 구체적으로는 첫째의 임금을 기준으로, 첫째 임금이 최저임금+50센트 이하로 50센트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겪은 집단을 처치그룹, 인상을 겪지 않은 집단을 통제그룹으로 설정하였으며, 이후 최저임금 이하부터 최저임금+5센트 이하까지 다양하게 관심 집단의 범위를 변경하여 추정치의 반응을 살펴봄.

-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

- 최저임금 문헌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비선형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
-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첫 해의 노동시장 성과를 활용하면 최저임금을 영향권 내의 저임금 노동자를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, 이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 비하여 더 정교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

- 핵심 결과

-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권 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었으나, 이 효과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집단에서만 발견
- 최저임금 인상 전 최저임금+50센트 이하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3.2%가량 감소하였으나, 최저임금+50센트 이상 최저임금+2달러

이하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는 유사하게 저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을 겪지 않음.

[그림 1] 발표 논문 표 2

Table 2: Minimum Wage Effects across Wage Group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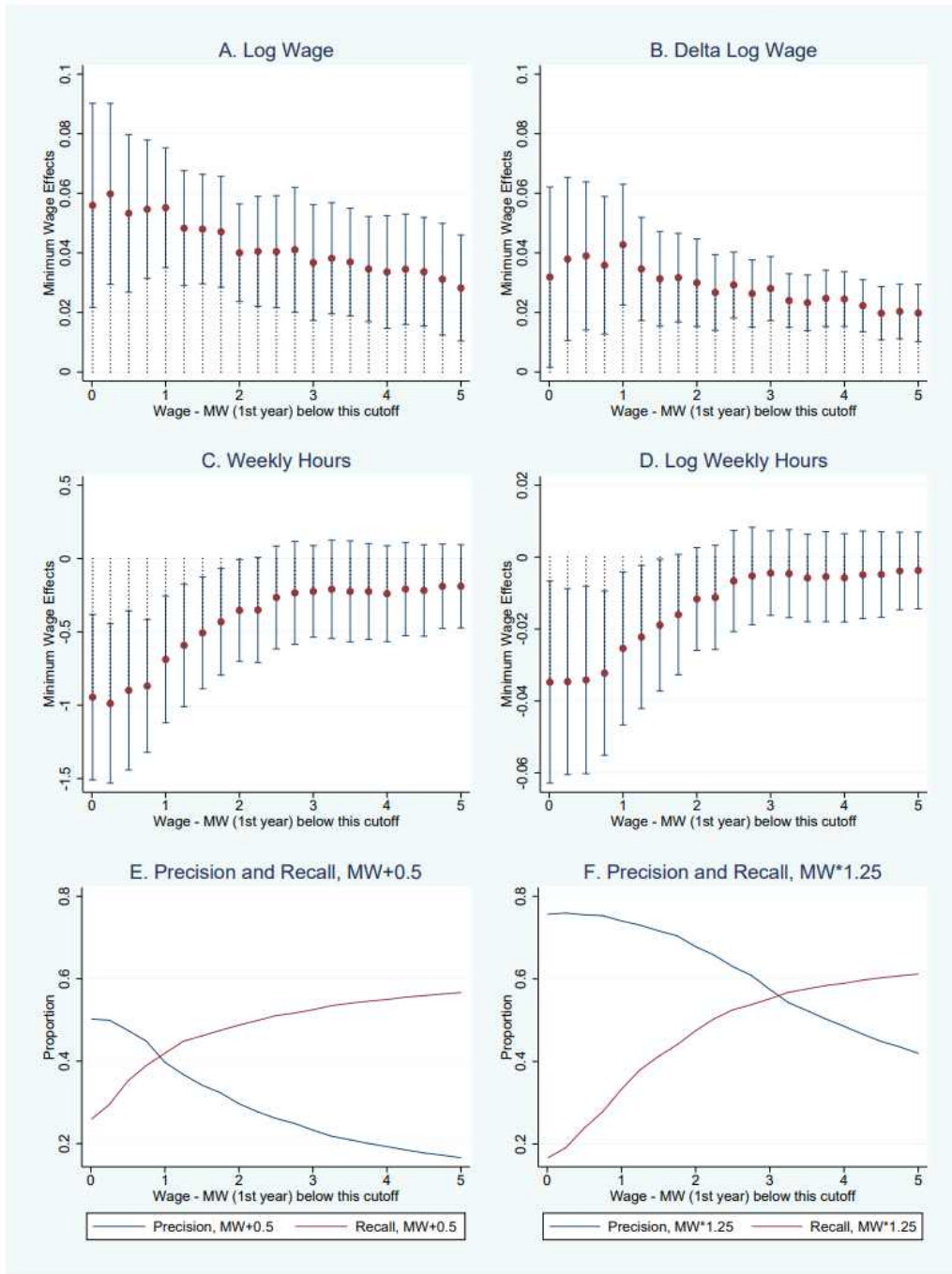
	Work in Both Years					Work in First Year	
	Log Wage (1)	Δ Log Wage (2)	Hours of Work (3)	Log Hour (4)	Log Earnings (5)	Work (6)	Hours of Work (7)
$D_{88} \times I(\tilde{w} = w^1 - MW^1 \leq 0.5)$	0.053*** (0.013)	0.037** (0.013)	-0.848** (0.268)	-0.032* (0.012)	-0.001 (0.017)	0.014 (0.015)	-0.354 (0.444)
$D_{88} \times I(0.5 < \tilde{w} \leq 2)$	0.031*** (0.009)	0.019** (0.006)	0.158 (0.205)	0.010 (0.007)	0.033* (0.013)	-0.010 (0.012)	-0.287 (0.406)
$D_{88} \times I(2 < \tilde{w} \leq 3.5)$	0.024+ (0.014)	0.014+ (0.007)	0.028 (0.243)	0.006 (0.009)	0.025* (0.012)	-0.000 (0.011)	0.092 (0.357)
$D_{88} \times I(3 < \tilde{w} \leq 5)$	0.010 (0.012)	0.006 (0.007)	-0.093 (0.233)	0.001 (0.009)	0.014 (0.017)	0.001 (0.008)	-0.043 (0.333)
Observations	74,146	74,146	74,146	74,146	74,144	91,304	91,304
Controls	Y	Y	Y	Y	Y	Y	Y
Group-by-State FE	Y	Y	Y	Y	Y	Y	Y
Group-by-Period FE	Y	Y	Y	Y	Y	Y	Y

Notes: $\tilde{w} = w^1 - MW^1$, the initial wage minus the initial minimum wage. Each number in the cell shows β_j . All the regressions include a quartic in age, indicators for high-school graduates, some college, B.A., above B.A., African-American, Hispanic, and other nonwhite races, and metropolitan residents as the individual controls. State-month-level unemployment rates and logs of the population are included. Standard errors are clustered at the state level. All results are weighted using earnings weight (*earnwt*). The period unit is a month.

*** p<0.001, ** p<0.01, * p<0.05, + p<0.1

- 기존 문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,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관련 노동자 집단을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
- 최저임금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키지 않았던 기존 주요 문헌의 경우, precision rate이 30~60% 가량이었는데, 패널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도 precision rate 60% 수준에서는 실제로 근로시간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, 근로시간 감소는 precision이 더 높은 수준일 때에만 나타남.
- 이러한 차별점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정확한 추정이 실제 최저임금 연구에 기여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줌.

Figure 2: Estimates with Different-Size Wage Groups



Notes: The X-axis shows thresholds for the size of wage groups. For instance, if the value of the X-axis is 1, it means observations with $w^1 - MW^1 \leq 1$ are used for estimation. Panels A through D show the point estimate and 95 confidence intervals. I use the same set of controls with Table 2, except for fixed effects. Since only one wage group is used for estimation, instead of group-by-state and group-by-time fixed effects, state and time-fixed effects are included. Panels E and F show precision and recall with two definitions of minimum wage workers. See text for more details.

- 초과근무수당을 고려할 경우, 이론적 예측과 유사하게, 단시간 및 초과

근무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주 40시간 전일제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 나타남.

- 최저임금 인상을 경험하면 주 40시간 초과 일하던 노동자는 주 40시간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졌으며, 반대로 35시간 미만 일하던 단시간 노동자는 주 40시간으로 이동할 확률이 낮아짐.

○ 참석자들의 주요 질문 및 참석자들과의 논의

- (질문) 현재의 분석 내용에서는 식별 가정(identified assumption)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데, 사건사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치하게 식별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
- (답변) 현재 사건사 분석을 이용하여 결과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으며, 초별적인 결과로는 식별 가정이 지지되고 있음.
- (질문) 패널자료를 이용하면 채용 등 다른 중요한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데, 이러한 점에서 오는 한계 및 상충관계(trade-off)에 관한 질문
- (답변) 채용과 같은 점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, 특히 노동자 수의 변화에서는 채용 채널이 핵심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분석은 extensive margin에서는 충분한 분석이 아님. 그러나 intensive margin에서는 패널자료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정확성이 핵심적인 도구이니만큼, 노동시간을 핵심으로 두는 현재의 연구 질문에서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용성이 크다는 점을 논의함.

3 참가 세션의 주요 발표 논문 및 시사점

1) AI 관련 세션 및 논문

☐ 개요

- 최근 AI의 영향이 확대되면서, 산업조직론 관련 세션들을 중심으로 AI

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·실증적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

- 주요 관련 참가 세션: Industrial Organization II, Invited Session: How Generative AI Reshapes Creative Production and Markets

□ 참가 세션의 주요 발표 논문 및 개요

- Hiding from Generative AI

- 저자: Sijie Lin (University of Toronto)
- 생성형 AI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에 공개(publish)하는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DeviantArt 플랫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
- AI 노출도가 높은 창작자와 그렇지 않은 창작자 간 two-way fixed effect를 이용하여 비교
- 생성형 AI의 등장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생산하는 경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(Instagram 자료 이용), 작품 공개에는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자신의 작품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

- Stated and Revealed Preferences for AI-Generated Content: YouTube AI “Slop” Backlash

- 저자: Jessica Fong (University of Michigan), H. Tai Lam (University of California, Los Angeles), and Olivia R. Natan (University of California, Berkeley)
- 시청자들이 AI로 인하여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하여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가 실제 시청 등으로 나타나는 행동(revealed preference)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대중의 AI에 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여럿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제 행동의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, YouTube 자료를 이용하여 이 문제에 접근

- YouTube 채널에 실제 업로드 된 영상의 댓글 자료를 이용, 실제 AI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댓글이 달린 이후 시청 양태 영향을 분석
- AI를 활용했다는 언급(callout)은 실제 조회수로 측정된 revealed preference에 영향을 미쳤으며, 이는 시청자(소비자)들이 실제로 AI를 활용한 제품을 선호하지 않음을 보여줌.
- 그러나 이러한 언급이 가져온 후생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음.

○ Does Generative AI Crowd Out Human Creators? Evidence from Pixiv

- 저자: Sueyoul Kim (Korea Development Institute), Ginger Jin (University of Maryland), and Eugik Lee (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)
- 생성형 AI의 등장이 인간 창작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Pixiv 자료를 이용하여,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류의 창작자와 그렇지 않은 창작자를 비교하여 접근
- AI로 인하여 생산성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,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창작자에게서 가장 크게 발견
- 매커니즘 규명을 위하여 AI-invasion Index를 이용하여 이질성 분석을 수행

○ 시사점

- AI의 영향에 관한 국제 학계의 활발한 연구 성과를 확인하였으며, 특히 미디어나 창작 등 AI 활용의 영향이 크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
- 소비자와 생산자 양측 모두에서 AI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논의가 존재하였으며, 특히 창작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추후의 정책적 논의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

-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는 특정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, 이러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할지에 관하여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.
- 메커니즘 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, 국내외 산업의 생산 및 소비 활동에 AI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확장해갈 필요

2) 노동·공공경제학 관련 논문

□ 개요

- 노동 및 공공경제학 관련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, 새롭게 진행되는 연구 정보를 확인하며 연구자들과 교류
- 주요 관련 참가 세션: Invited Session: Gender and Household, Labor and Public Economics II: Health, Labor and Public Economics V: Marraige and Fertility, Labor and Public Economics VIII, Labor and Public Economics IX

□ 참가 세션의 주요 발표 논문 및 개요

- The Health Effects of Working Around Retirement Age
 - 저자: Hao Fe (San Diego State University), Carolina Caetano (University of Georgia), Gregorio Caetano (University of Georgia), and Eric Nielsen (Federal Reserve Board)
 - 미국 자료를 이용, 전통적인 은퇴 연령(65세) 이후에 일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 - Partial retirement가 활발한 미국의 맥락을 고려하여, 완전한 노동과 완전한 은퇴 사이의 비교보다는 은퇴와 partial retirement 혹은 단시간 노동 사이의 비교를 택함.
 - Caetano et al. (2025)에서 제시한, Bunching을 응용한 방법론을 이용,

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과 단시간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비교

- 은퇴 연령 이후에 일하는 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, 인지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향상되는 모습이 관찰
- 은퇴 후 일정한 수준의 일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와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, 해당 연구는 내생성을 통제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
-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연구는 국내의 정년 연장이나 노인일자리 등 고령층 노동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, 또한 인지적 역량의 향상, 서로 다른 노동시장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상황으로의 적용 가능성은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

○ Family Fertility Norms

- 저자: Tsz Chun Kwok (Uppsala University)
- 가족을 통하여 물려받은 출산 관련 규범이 실제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부부 각각의 출산 관련 규범은 각각의 각 구성을 이용하여 측정
- 스웨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, 출산 관련 규범이 실제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
- 국내의 저출산 상황에서도 출산이나 규범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존재하는바, 출산 관련 규범이 실제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확인한 것은 시사점이 있음.

○ Anti-Domestic Violence Law and Female Labor Income

- 저자: Xinyan Liu (Lingnan University)
- 중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 것이 기혼 여성

의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
- 2016년 중국에서 Anti-Domestic Violence Law가 제정된 것을 이용하여 삼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
 - 더 향상된 정신건강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켰고(intensive margin), 근로 소득 증대로 이어짐
 - 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확인
- Agreeing to Disagree: Political Partisanship and Team Performance in Healthcare
- 저자: Haizhen Lin (Indiana University), Yanhao Wang (University of Alberta), and Jia Xiang (Indiana University)
 - 미국에서 의료진 수술 팀의 구성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,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
 - 두 의사 간 성향이 다를 때가 같을 때에 비하여 의료 및 수술 관련 자원을 덜 활용하면서도 성과가 좋아 생산성이 향상됨을 확인
 - 조직 구성에서의 다양성이 실제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, 무작위적 수술 팀 구성 환경과 성과에 관한 좋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 비하여 진일보한 이해를 구축한 것으로 생각됨.
- Gig Jobs as a Buffer: How Employment Contracts and Production Evolve in Firms
- 저자: Ruixin Wang (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), Kimsau Chung (Hong Kong Baptist University), Tang Li (Wuhan University), Huihua Xie (Zhejiang University)

-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도 증가하고 있음.
- 공식적인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한 사람의 비율은 2015년에 최정점에 달하였으나,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중.
- 이처럼 Gig economy가 증가한 것이 기업의 고용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Gig economy가 증가한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outside option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섭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직관 하에 관련된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- 구체적으로는 주요한 Gig economy 일자리를 제공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의 진입을 처치(treatment)로 이용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
- 음식 배달 플랫폼의 진입은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공식적인 근로계약 체결 비율을 낮추었으나, 또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경우 지속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발견되었음.
- 국내에서는 아직 Gig economy 등 비공식 부문의 성장이 중국과 같이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에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지만, 추후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며 비공식 부문이 더 성장한다면 이는 공식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음.
- 타국에서 비공식 부문의 성장 및 그 영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국내 노동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에 유의할 필요